



엑스포 준비되어 있소이다.

BUSAN is good for the EXPO.

“Amazing BUSAN!”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BIE 실사단은 “부산은 모든것을 갖춘 도시”라며 최고의 감동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는 11월,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부산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3.4.2~7	2023.6	2023.11	유치 성공 시 2030년 5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BIE 실사단 방문 완료 (인프라 및 유치 열기 등 평가)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PT	개회국 선정 투표 (171개 회원국 비밀투표)	61조원 경제 효과 50만명 일자리 창출 3,480만명 방문 예상



부산체육 2023. 08 Vol. 57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57**
2023. 08

학교체육의 선봉장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오선 부회장

부산체육의 미래
부산고등학교 야구부



부산광역시체육회

CONTENTS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3. 08 Vol. 57



발행일 2023년 8월 16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57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도희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체

체육 발전

04
학교체육의 선봉장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08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오선 부회장

12
영광의 인물
부산광역시양궁협회
이세일 부회장

16
부산체육의 미래
부산고등학교 야구부

20
스포츠 이야기
2025년 전 국민 감동체전 "Ready Go!"



08

인

인화 소통

24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26
달려라 부산체육
서평동호회 팀 서프파크

30
이슈 & 포커스
2023 레크리에이션교실

32
부산스포츠 기자단
- 제1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 장거리
핀수영대회 사하스포츠클럽 종합우승
- 여름 스포츠로 스케이팅은 어떠신가요?
부산실내빙상장

지

지식 나눔

36
스포츠 PLUS +
바람에 몸을 싣고 저 바다에 누워...
요트

40
스포츠 Job
운동선수의 멘탈 코치
스포츠 심리상담사

42
건강 라이프
무더운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44
스포츠 정보 알림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업

업글 소식

48
문화 공간
요시고 사진전

50
BSC 뉴스
- 2023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개최
- 부산체육사랑카드 발행 협약 및 1호 카드 전달식

52
회원단체 소식

56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59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26



51

부산 학교체육의 든든한 동반자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운수 교육감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하운수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학생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Q 올해 3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침체인지(體仁智)'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가 크게 약화되었고, 학력과 체력의 저하와 정서적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약화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신체적 부대낌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기르고 잠자는 두뇌를 깨워 학력을 신장시키는 아침체인지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산 시민 누구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에서 추진 중인 '생활체육 천국도시' 사업과 궤를 같이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침체인지(體仁智)'는 진정한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한 '바꿈'을 뜻하는 change와 학생들의 몸(體), 인성(仁), 그리고 두뇌(智)를 활성화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자료를 보면 저체력 학생 비율이 2018년 11.3%에서 2022년 16.6%로 증가했는데요.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한 꾸준한 아침체인지를 통해 학교에서 자율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체력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동 여건 공간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에는 인조잔디, 우레탄 구장 등의 시설을 보완하고, 교당 1천만 원의 감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체인지 활동 도입 초기에는 50여 개의 학교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학교가 추가로 신청하여 현재 총 410교(초 154, 중 149, 고 101, 특수 6), 약 19만 명의 학생들이 아침체인지 선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침체인지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경기도 등 타 시도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며 아침체인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요청으로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침체인지 사업의 장점을 내실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5년에는 부산의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공감체인지' 사업으로 발전시켜 아침체인지 열기를 널리 알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성교육 실천에 동참하여 건강한 교육공동체 복원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Q 부산 내 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을 증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문체육(학교운동부)으로 이어지는 선진·선순환 체육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학교스포츠클럽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부산 학생 모두가 학교스포츠클럽에 즐겁게 활동함으로써 건강 증진, 여가선용, 인성 함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스포츠클럽(초·중·고 995팀, 30억 원)과, 교육감배 대회(6억 5천만 원),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초·중·고 113팀, 2억 8천만 원) 등 총 43억 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6월부터 10월까지 18개 종목이 개최되며, 지역 예선(교육장배)을 거쳐 초·중·고 319교 760여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에서 종목별 1위 팀은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참가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반기에는 종목별 협회와 연계하여 15여 개 종목을 추가해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종목에서 재능을 보이는 신인선수를 발굴하여 전문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를 연계하는 선순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산 아이파크와 함께하는 '초등 축구클럽 방과후교실'(거점학교 5교),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 만남 교실'(초·중 137교, 티볼-롯데아이언츠, 농구-한국여자농구연맹)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아침체인지'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학교 간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2025년에는 부산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어떤 활동 및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2025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상위 입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부산으로 우수지도자가 올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문체육인(학교운동부)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업 추진 시에 부산광역시체육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각종 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취약종목의 효율적 지도와 운동부의 합리적 관리에도 힘쓸 것입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부대시설 확충 사업 확대를 통해 쾌적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후 시설 개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아침체인지'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학교 간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교육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와 그 매력은 무엇 인가요?

저는 걷기를 좋아합니다. 매일 아침 수영강변을 만 보 이상 걷고 있는데요. 약 1시간 동안 걷다가 뛰기를 반복(인터벌 트레이닝)하다 보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몸도 매우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테니스도 즐기는데요. 테니스는 특히 유산소 운동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관계 강화 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소방본부와 함께 테니스 대회를 정례화하여 3기관이 소통·화합하는 장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2번의 대회 모두 우리 교육청이 우승하였습니다. 대회 중 강력한 라이벌인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테니스 빅매치를 벌였는데, 너무 열심히 뛰 나머지 골반에 염증이와 한동안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웃음) 저처럼 지나친 운동을 조심하시되, 꾸준하게 운동하시면 분명 몸에서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Q 앞으로 부산 학교체육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과,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을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정규체육수업 분야에서는 아침체인지 사업 확대 및 내실화에 집중하면서, 교사들의 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연수로 양질의 체육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학생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선수가 발굴·육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분야에서는 교당 20개 정도의 클럽을 육성해 1학생 1스포츠 등 활발한 체육활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아침을 깨우는 '아침체인지' 체육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부대끼며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학교 간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고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여성체육의 찬란한 꽃을 피우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동아플레이팅 대표 이오선

무려 27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산에서 가장 바쁜 CEO로 알려져 있는 이오선 부회장. 무수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인터뷰 내내 건강한 에너지를 뽐어내는 그의 모습은 부산체육과 많이 닮아있었다.

끝내 아름답게 꽃 피운 야생화

뿌리 산업의 여전사, 제조업 최초 여성 1호 기능한국인 등 이오선 부회장의 이름 앞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그중 이오선 부회장이 가장 마음에 드는 수식어는 다름 아닌 '야생화'다.

“한 신문사의 CEO의 삶에 관한 칼럼을 쓰고 난 뒤, 어떤 제목을 붙일까 생각해 봤어요. 돌이켜 보니 제 삶이 야생화 같은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칼럼을 ‘야생화와 같은 CEO를 꿈꾼다’라고 붙였죠.”

이는 이오선 부회장이 살아온 여정이 그리 녹록지 않았음을 여실히 대변해주는 말이라. 37세 보험회사 소장으로 활약하던 그는 보험계약과 대출 등으로 얽혀 있던 도금 회사가 부도가 났고, 담보로 잡고 있던 도금 회사를 끌어안게 되면서, 도금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길은 전혀 순탄치 않았다. ‘여성이 무슨 도금이나?’라는 편견, 직원들의 부상과 산재사고, 화재 사고도 3번이나 나는 등 시련은 끝없이 그를 낭떠러지로 몰고 갔다. 그럼에도 이오선 부회장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가장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예요. (웃음) 항상 그런 애길 하셨어요. ‘참을 인(忍) 세 번이면 화낼 일이 없을 거다’라고요.”

매번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 가득 적어 본다.

“그렇게 하고 나면 생각이 정리되면서 시야가 확장되고,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지혜도 생기죠. 또한 힘들음을 이겨내고 나면, 다음에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도 얻게 되고요.”

시련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이오선 부회장은 표면처리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의 수장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표면처리 산업을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공장을 개선했는데, 이 환경을 직접 보고자 이재용 회장(삼성)이 방문하기도 했다.



저희 회사는 100년 기업을 목표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데요. 그 나눔이 부산광역시체육회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재용 회장께서 ‘아름다운 현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친필 사인을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도금업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생각을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도금업이 아닌,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오선 부회장은 앞으로 호텔 같은 도금 공장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또 하나의 꽃망울을 맺어가고 있다.

MZ세대를 품는 리더의 품격

이오선 부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둘러보고 있노라면 단연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최첨단 시스템이 갖춰진 환경 가운데 일하는 직원 대부분이 MZ세대라는 것. 직원들의 복지는 물론 자격증 취득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젊은 세대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 이오선 부회장. 그는 MZ세대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

“요즘 젊은이들엔 끈기와 지구력이 없어요. 당장 상황이 힘들다고 일을 그만두려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정말 자신의 미래를 두고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회사를 관두겠다고 대표실을 찾아오는 직원들에게 이오선 부회장은 자신만의 노하우로 직원들을 품어준다고.

“요즘 사직서도 메신저로 제출하는 시대인데, 적어도 대표실로 찾아오는 직원이라면 저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흥분한 상태로 오곤 하는데, 테이블에 놓인 여러 종류의 음료수를 고르라고 시간을 주곤 하죠. (웃음)”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이오선 부회장만의 배려인 셈이다. 이후 직원의 고충을 듣고 난 뒤 이오선 부회장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산과 호수를 배경으로 푸른 소나무 두 그루가 조화를 이룬 윤상웅 작가의 ‘만사형통 왕의 일월송’)을 가리키며 대화를 이어나간다.

“저기 소나무를 보면 참 멋있다. 그런데 소나무 가지가 하나 부러진다고 해도 아무 표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 가지 하나 부러진 소나무는 멋있지 않다. 소나무 가지의 잎으로 매달려 있기만 해도 울창한 소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가자고 말하죠.”



자신과 살아온 방식이 다른 젊은 세대의 삶을 존중하고 품어주는 이오선 부회장은 여성 후배 CEO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말 부산에서 세계 최대 스타트업 행사 ‘슬러시드 바이 99도’가 개최되었는데,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 기업인들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 간의 연결고리 강화를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이때 후배에게 황금명함패를 전달하는 식순이 있었는데, 그 순간 이오선 부회장은 자신이 여성 CEO 멘토로 선정되어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이 컸다.

“앞으로 제가 어떤 넉넉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100년 기업을 목표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그 나눔이 부산광역시체육회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에너지원, 스포츠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민선 시대를 열어가면서 2020년부터 인연을 맺게 된 이오선 부회장은 세운철강 신정택 회장으로부터 부회장직을 추천받았다.

“처음 제안해주셨을 때, 제 대답은 ‘못한다’였어요. (웃음) 그런데 신 회장님께서 ‘체육은 알고서 하는 게 아니라, (체육 현장에) 가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주셨죠.”

그렇게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부산체육인들의 건강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지난 4월 구미에서 열린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여했는데, 여성분들이 젊고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젊은 시절에는 일하고 남은 시간에 운동했다면, 이제는 운동하고 남은 시간에 일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오선 부회장 역시 60대가 넘어가면서 일보다 운동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건강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 수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골프, 배드민턴, 걷기 등 다양한 운동을 경험했지만, 전국체육대회 부산 선수단 결단식 오프닝 행사로 진행된 댄스스포츠를 보고 매료되었다.



“박가서 부회장님께 같이 배워서 나중에 오프닝 행사에 서자고 했죠. (웃음) 실제로 배우기도 했는데, 조금밖에 못 춤니다만 덕분에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평소 막연하게 스포츠를 알았다면, 부산광역시체육회를 통해 각 종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스포츠 대회가 열리면 관람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었다. 최근 여성체육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며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오선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부산체육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부산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부산체육인들,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내는 많은 스포츠 분야에 계신 분들을 응원하고요. 앞으로 세계의 다양한 무대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재들이 부산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 일에 관심으로, 나눔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정이라는 과녁을 향해 쏘는 화살

부산광역시양궁협회 이세일 부회장

인터뷰 내내 양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던 이세일 부회장.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직접 양궁을 배워볼 수 있게 지도해줄 만큼, 식지 않는 열정으로 지금까지도 '양궁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의 삶을 들어보았다.

천진난만 중학생, 양궁 신예가 되다

1년 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한 전시관에서 <한국양궁의 선구자 故 석봉근 선생 기념전>이 열렸다. 기념전을 기획한 것은 다름 아닌 이세일 부회장.

“오랜 교직 생활에서 물러나며 은사님에게 배운 양궁으로 평생을 걸어온 것에 대한 감사로, 선후배들과 함께 은사님의 유품과 초창기 양궁 관련 자료들을 모아 기념전을 열었습니다.”

그에게 이토록 각별한 은사님과의 인연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세일 부회장은 중학교 1학년 당시 故 석봉근 선생의 제자로 양궁을 시작하여 2년 후인 1975년,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나라 신기록(궁도)을 수립하였다. 활쏘기 신예를 알아본 국무총리는 이세일 부회장에게 거금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보통의 중학생이라면 간식거리를 사먹었겠지만, 장학금은 그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장비들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했어요. 그렇게 마련한 장비 덕분에 양궁 실력도 덩달아 늘더라고요. 실력 향상에 있어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되었죠.”

중학생의 천진한 마음이 서서히 열정으로 채워진 것은 그때

부터였을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이세일 부회장의 열정은 은사님에게 물려받은 귀중한 보물이다. 그가 처음 양궁 세계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짚 다다미를 표적 삼아 훈련하는 등 제대로 된 시설도, 장비도 갖추지 못할 만큼 시스템이 열악했다고 한다. 그때 故 석봉근 선생께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비로 쓸 만한 물건들을 구해와 조합하여 직접 활을 만들어 주시고, 다방면으로 시도해 주신 덕분에 훈련 환경은 점차 개선되었다고.

“내가 왜 지금까지도 양궁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있는가 생각이 들 때면 은사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저의 모습이 마치 그때의 은사님 같아요. 당시 그 모습이 아주 깊게 각인된 거죠. 50년 세월 동안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싫지가 않아요. 여전히 양궁 이야기를 하면 즐겁습니다.”

은사님께 물려받은 보물 '열정'

학창시절 훈련을 위해 세워두었던 짚 다다미가 갑작스레 내린 비에 젖기라도 할까 혼자 학교로 돌아가 치우곤 했다는 이세일 부회장. 사소한 훈련 장비도 소중히 다룰 만큼 '양궁 열정'이 남달랐던 그도 한 번의 좌절은 피해갈 수 없었다.



활은 작은 부속품이 하나라도 고장 나버리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작은 것이라고 간과한다면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양궁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움은 지금까지도 제 삶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1979년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지만, 세계적으로 기록을 세우던 여자팀과는 달리 남자팀은 기량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시기였던 터라 대회에 불참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실망감도 크고, 좌절감도 느꼈지만 납득해야만 했죠. 이듬해 모스크바 올림픽대회도 정치적 시대상황의 이유와 서방 국가들의 보이콧으로 전 종목 선수들이 대회 참가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충격도, 아쉬움도 컸지만, 다음 목표를 향해 마음을 가다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세일 부회장은 선수로서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과 좌절을 딛고, 열정의 불씨로 실력을 갈고닦아 더 많은 이들에게 양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8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종목 금메달을 거머쥔 그는 7년 후 88서울패럴림픽대회 양궁 코치로 활약하고, 다음 해 체육훈장 거상장을 수상했다. 이후 1990년에는 부산으로 내려와 교직에 서게 되었다는 이세일 부회장. 그때부터 그와 부산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세일 부회장은 양궁 이야기에 여전히 두 눈을 반짝이면서 교편을 잡던 당시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올림픽 대회에서 양궁은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양궁이 정확히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 전혀 몰라요. 체육교사였을 당시, 학생들이 양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해서 졸업 전에 양궁 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르게 했어요.”

활은 다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학교에서 양궁 활동을 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양궁을 알리고 싶었던 의지와 전공자로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통솔하겠다는 책임감으로 학교를 설득하여 결국 직접 ‘양궁 클럽’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이세일 부회장.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운동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공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활을 쏘면서 해소하고, 적중했을 때는 쾌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활을 쏠 때는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이세일 부회장의 진심이 학생들에게도 통했던 것일까. 양궁을 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얼른 활을 쏘고 싶어진다는 학생들의 말을 들을 때면 그는 뿌듯함과 동시에 더 강한 애착과 책임감이 생겼다고 한다.

작은 것들이 모여 이룬 세계

이세일 부회장 삶의 기저에는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하자’는 철학이 있다. ‘맹모삼천’이라는 말이 있듯,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는 은사님을 떠올리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끔 은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궁금해진다고.

“선생님을 만났던 어린 시절부터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배우려고 했어요. 검소하게 사는 것, 부지런하게 사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모두 선생님을 통해 배우게 된 삶의 자세죠.”

은사님은 그를 양궁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활은 작은 부속품이 하나라도 고장 나버리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작은 것이라고 간과한다면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양궁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움은 지금까지도 제 삶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양궁협회는 조승민 회장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세일 부회장은 지도자와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양궁을 향한 열정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모두가 하나 되는 협회로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생활체육으로서 양궁 저변 확대를 위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을 마쳤다. 오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양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흥무진하는 이세일 부회장. 일직선으로 곧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몸소 화살이 되어 열정이라는 과녁을 향해 조준하는 그의 삶을 응원한다.



부산 고교야구 자존심, 명가 재건의 신호탄을 쏜다!

부산고등학교 야구부

작년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부산고 야구부.
지난 5월에는 무려 77년 만에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첫 우승을 차지,
대한민국 고교야구부 중 9번째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명가 재건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고교야구대회 사진 제공: 스포츠공화국



기본에 충실한 야구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긴 했지만, 부산고 야구부의 명성에 비해 낮은 감은 있습니다.”

부산고 야구부 재건의 일등 공신인 박계원 감독은 솔직하게 소회를 털어놓았다. 부산고 야구부는 익히 알려진 명성대로 1947년 창단 이후, 전국고교야구대회 다수 우승은 물론 한국을 넘어 세계 프로야구 무대를 주름잡는 선수를 다수 배출하며 야구 명문가다운 행보를 걸어왔다. 그러던 중 2010년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을 마지막으로 10여 년 동안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9월 박계원 감독이 부임하게 된 것. 부산고 야구부 출신이기도 한 그는 당시 ‘3년 이내에 전국대회 우승을 해놓겠다’라며 당당히 선전포고 하였다.

“우승의 필수 조건은 선수 구성입니다.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제 야구관을 선수들에게 이해시키는 시간이 3년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부임 후 만 24개월 만에 우승(50회 봉황대기), 또 8개월 뒤에 우승(77회 황금사자기)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웃음)”

11년간 프로선수로 활약하고 16년간 코치 생활을 해왔던 박계원 감독. 단시간에 부산고를 정상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었던 그의 야구관은 무엇일까?

“기본기죠. 고교선수들은 당장 성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에 기본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선수들도 기본기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하물며 고교선수는 더욱 기본기를 다져야죠.”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작전 연습을 통해 반복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다.

“공격에서는 한 베이스를 더 가기 위해, 동점 상황에서 한 점을 더 내기 위해 주자들이 상황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약속된 플레이를 연습했죠.”

특히 이번 황금사자기대회에서는 훈련 때 연습했던 상황들이 많이 나왔고, 각 포지션별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 제 몫을 다해준 덕분에 완벽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반대로 수비에서는 한 점을 막기 위한 수비, 베이스를 절대 비우지 말고 내야수가 수비할 수 있는 포메이션 훈련을 반복해서 익혔습니다.”

‘조그마한 동작이라도 3만 번 반복해야 비로소 몸이 기억한다’라고 항상 선수들에게 강조한다는 박계원 감독의 말은 부산고 야구부가 그라운드를 정복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었다.

내년이 더욱 기대될 탄탄한 선수 구성

만 3년 동안 다양한 경기를 감독해온 박계원 감독.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를 묻자 작년 봉황대기대회를 꼽았다. 이유인즉슨 우승할 전력이 아니라 판단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한 게임, 한 게임 이기다 보니 결승전에 진출했고, 원상현 투수가 한계투구수 105개를 던지면서 9회 1사까지 던졌어요. 1대 0이라는 스코어로 쫓깃쫓깃하게 이겼죠. (웃음)”



박계원 감독

이번 황금사자기대회에서는 2학년 투수트리오(김정엽, 김동후, 천겸 선수)들이 호투해주면서 어려운 게임이 단 하나도 없었다.

“부산고 야구부의 자랑이라고 하면 투수진입니다. 말 그대로 투수왕국이죠. 투수들이 서로 마운드에 오르고 싶어 저와 눈을 마주치려고 해요.”

현재 부산고 야구부는 모두 박계원 감독이 스카우트한 선수들로 구성된 만큼 다채로운 플레이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내년 시즌에 대한 자신감도 당당히 내비쳤다.

“작년 봉황기 우승 당시 올해가 선수 구성이 좋으니 기대해달라고 동문들에게 자랑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활약할 선수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내년에도 전국대회 우승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감독은 훈련뿐만 아니라, 야구선수에게 필요한 웨이트 트레이닝 트렌드를 배워 기초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벌크업이 대세였으나, 현재는 야구선수들이 가장 힘주는 부위인 코어와 힘을 쓸 수 있는 발란스 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수들 대부분 프로 입단이 목표인데, 야구선수로 통런하기 위해서는 실력뿐만 아니라 좋은 인성을 갖춰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선수로 성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고 야구부는 8월 중순에 진행되는 봉황기대회와 10월 부산 대표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을 앞두고 있다. 하반기 시즌 동안 선수들이 부상 없이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박계원 감독은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했다.

“부산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랜 침체기 끝에 전국 무대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의 모든 고교야구부가 강팀이 되는 그날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전적

청룡기	17회, 33회, 34회(1979)
화랑대기	14회, 15회, 17회, 18회, 30회, 31회, 36회, 43회, 44회, 55회, 59회, 62회(2010)
대통령배	12회, 16회, 23회, 26회, 33회, 34회(2000)
봉황대기	15회, 16회, 23회, 50회(2022)
황금사자기	77회(2023)

선수 인터뷰

1 야구를 시작한 계기는? 2 야구선수로서의 강점은? 3 고교선수로서의 마지막 하반기 일정을 앞두고 각오



원상현
NO.54 투수

2022 봉황대기 최우수선수상, 우수투수상

- 1**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저 때문에 9회 때 9실점을 하면서 팀이 졌어요. 집에 돌아와 테이프로 공을 맞아 새벽 2시까지 던졌죠. 그때 야구를 제대로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 2**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얘기해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한계투구 이후에도 구속(150km)이 좋은 등 힘과 스피드가 넘칩니다. 또한 마운드에 올라서면 저의 에너지로 상대를 제압하곤 합니다.
- 3**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 아쉽게 놓친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대회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야구뿐 아니라 프로선수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는 감독님,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 1** 취미반에서 야구를 즐기다가, 감독님 추천으로 초등학교 5학년 끝날 무렵부터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공부는 힘들었고, 야구는 재밌어 보여서 더욱 즐겼던 것 같습니다.
- 2** 타자가 치기 힘든 상황을 만든 후, 제일 자신 있는 공을 던져 승부를 마무리 짓는 능력이 좋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가 타자를 삼진으로 잡고 이닝을 끝내고 내려올 때,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 3** 감독님, 코치님이 잘 지도해주신 덕분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봉황대기 2연패를 하여 다시 한번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성과 실력을 깔끔하게 갖춘 프로선수가 되겠습니다.



성영탁
NO.45 투수

2023 황금사자기 우수투수상



연준원
NO.17 외야수

2023 황금사자기 최다득점상

- 1** 7살 나이 차가 있는 형이 중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었어요. 어릴 때 저랑 같이 놀아주면서 야구를 많이 했었는데, 크면서 야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2** 아버지가 육상 선수 출신이셔서 저 역시 달리기 빠르고, 탄력이 좋습니다. 주루 플레이에 자신 있고요. 타석에 들어서면 무조건 출루를 생각하고 뛰는데, 경기하다 보면 재미있어서 그라운드를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 3** KBO 신인드래프트가 끝난 뒤에 출전하는 전국체육대회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남은 하반기 대회에서 한 번 더 우승기를 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로에 가서 1군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2025년 전 국민 감동체전 “Ready Go!”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사령탑 ‘전국체전기획단’ 내년 본격 가동

글_ 원성만

지난 7월 5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D-100일 부산 선수단 출정식’으로, 오는 10월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부산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행사였다.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 2025년 부산에서 열려

전국체육대회는 국내 최대의 스포츠 축제이다. 올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전라남도에서 열린다. 내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경상남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31일~11월 6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70개소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49개 종목(정식 47, 시범 2)에 선수 2만 명, 임원 1만 명 등 약 3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본다. 부산으로서는 2000년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25년 만에 개최되어, 그동안 부산의 확 달라진 도시경쟁력과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되면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향한 대한민국의 하나 된 저력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이에 <부산체육>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부산의 저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스포츠 대축제가 되도록 조직, 경기장 시설, 홍보, 선수 육성 등 준비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국체육대회는 ‘건강·체육 천국 도시’ 도약대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멈춰 세웠다.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이전 전국체전)도 피해 갈 수 없었다. 2020년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2021년에는 대학부와 일반부를 제외한 고등부 대회만 진행했다. 다행히 작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제103회 전국체전’이 울산광역시에서 3년 만에 정상 개최됐다. 부산 선수단은 금메달 57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78개를 획득했다. 부산은 총 3만 8,154점을 얻어 종합 8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확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엘리트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2위,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를 기록한 이후로는 성적이 아쉽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도 부산을 ‘건강·체육 천국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스포츠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이며, 도시의 활력과 매력을 높이기 위한 부산시의 핵심과제”라고도 말했다. 부산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직야구장 재건축, 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등 메인스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구군 지역별 편차 없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힘 쏟고 있다.



2022년부터 5년간 구·군별로 1~2개 신규 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시설은 연간 12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기능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 시설이 전국체전에도 활용된다고 보면 부산시는 이미 2025년 제106회 전국체전 준비에 돌입했다고 보인다. 엘리트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체전팀' 가동, 내년에 '전국체전기획단'으로 전환

부산은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이후로 이렇다 할 전국 규모의 대형 체육 대회가 없었다. 따라서 25년 만에 개최하는 전국체전이라 부산시는 노후 경기장 및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시급하다 판단하고 있다.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최대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목별 시설 규정에 맞게 경기장을 개·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체육진흥과 안에 '전국체전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전국체전팀'은 제106회 전국체전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전국체전기획단'이 출범하는 시점까지 활동한다.

체육시설 전수조사와 시설 개·보수 기본 로드맵 작성, 경기장 배정 기본계획 및 공·승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한 국비 확보, 조직·집행위 구성·운영 등 체전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와 연계하여 '15분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15분 도시'란 시민 누구나 15분 거리 안에서 문화와 체육 등 여가 활동을 활기차게 보내면서 자율적인 공동체 생활로 이웃과 다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025년 부산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부산 전역에 '15분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체육 인프라 개선 및 확충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선수 경기력 증대 등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저변 확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보강 필요해

실제로 부산시는 올해 '전국체전팀' 출범에 앞서 작년에 '전국체전TF'를 구성하여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을 비롯해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고, 경기장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해 왔다.



부산광역시체육회, 16개 구·군과 함께 경기장별 개·보수비용을 산출하고, 국·시비 확보를 위해 소요 예산을 미리 계산하는 등 준비에 이미 돌입했다. 경기별, 종목별 경기장 배정도 미리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마스코트와 구호, 포스터, 표어 등 상징물 공모에도 들어갔다.

다만, 구·군에 체육대회 운영 조직이 없다 보니 부산시가 모든 업무를 전담해서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안에 경기장과 시설 개·보수 물량을 산출하고 공사 범위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를 전담해서 행정 전문 인력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5년까지 아직 2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체계적 업무 추진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필요한 시설의 차질 없는 개·보수 등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완벽한 전국체전 준비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부산시가 목표로 하는 '전 국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제106회 전국체전'을 얼마나 밀도 있게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새로운 비전과 달라진 도시 위상, 도시경쟁력을 가능하게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양 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사하구의 자랑, 다대포해수욕장은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운 모래와 낮은 수심으로 아이들과 놀러 가기 좋은 명소이다.

사하구체육회는 이처럼 훌륭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해양 레포츠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Q.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하구체육회는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체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체육회장직을 맡으신 분들 중 전국 최고령이신 이영수 회장님을 포함한 37명의 임원과 28개 회원종목단체(정회원 18개, 준회원 2개, 인정단체 8개), 288개 클럽, 11,849명 동호인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사하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비롯해 을숙도생태공원, 다대포해수욕장 등의 관광지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징을 활용한 사하구체육회의 자랑거리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잔잔한 파도 덕분에 특히 초보 서퍼들에게 인기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서핑교실'을 다대포해양레포츠아카데미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체능교실 및 주 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해양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여름해양캠프'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해양캠프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다대포 바닷가에서 하루 동안 서핑, SUP, 밴드웨건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해마다 신청 첫날 모집이 마감될 만큼 인기가 대단합니다.

Q. 사하구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2년도 지도동영상 및 지도교안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228개 구·군체육회 중 '지도 동영상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동영상은 어떤 내용이며, 동영상 제작 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사하구체육회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대중적인 운동인 '헬스', '웨이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은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헬스장에서 보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 초급으로 시작해서 중급을 거쳐 고급 동작까지



이어지는 트레이닝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운동을 재밌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정확하게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Q. 사하구체육회는 평소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참가하는 회원종목단체 소속팀 참가 운영비 지원, 어르신체육동호회 시설 사용료 지원 및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23년 국무총리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여자 복식' 우승, '2023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복식' 우승 및 단체전 3위, '2023년 춘계연맹전' 2위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사하구청 유일 직장운동부인 정구팀이 더 좋은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매년 훈련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룡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한 사하구 대표 유소년 축구클럽인 사하 FC 소속 선수들에게는 유니폼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초등학교 운동부에 훈련 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 사하구체육회의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하구의 랜드마크인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여러 가지 해양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해양 스포츠 문화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사하구체육회만의 차별화된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앞장서는, 사하구 구민들의 든든한 스포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파도를 잡아라

서핑동호회 팀 서프파크

파도를 기다리는 데서 시작되는 서핑의 세계.
 변화무쌍한 파도를 따라 새로운 경험을 쌓아나가는 쾌감은
 서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다.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바다를 저어가는 서핑동호회 팀 서프파크를 만나보았다.



Q. 팀 서프파크 동호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팀 서프파크 동호회는 서핑을 배우러 오신 분들을 통해서 작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회원들 중 상당수가 유소년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서핑에 빠져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대회 출전'이라는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2 제1회 교육감 배 서핑대회에 참가하였고, 수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에서도 상을 받게 되었다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성취감으로 유소년 동호회원들은 더욱 서핑에 빠질 수 있었고, 아이들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된 성인분들도 참여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Q. 회원들은 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동호회를 찾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서핑을 잘 타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서핑은 개인 스포츠라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무료할 수도 있고, 더욱이 내가 지금 서핑을 잘 타고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서프 버디를 찾기 위해 동호회를 찾아와 함께 서핑하고, 정보도 공유합니다. 또한 유소년 회원들의 경우 대회 출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보니, 대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Q. 동호회에 대해 자랑한다면?

우선, 여러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탔다는 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1회 교육감배 서핑대회에서는 유소년 회원들이 1~3등을 휩쓸었습니다. 성인 회원의 경우 송정 서핑대회 때 두 분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동호회원들이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서핑은 좋은 파도를 타야 하는 스포츠인데, 그 좋은 파도를 만날 수 있는 건 태풍이 지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역이나 해초류는 물론 쓰레기들이 파도에 밀려와 해수욕장을 더럽히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썩은 해초류가 악취를 내뿜기 때문에, 바로 치워야 해요. 저희 동호회원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맘때면 함께 청소 봉사활동을 하러 모입니다. 물론 청소하는 동안 좋은 파도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과 저희가 사랑하는 송정해수욕장을 위해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는 마음이 예쁜 동호회입니다. (최근에는 구청에서 청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Q. 활동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동호회와는 달리 팀 서프파크 동호회는 서핑을 탈 수 있는 파도가 있을 때만 모입니다. 직장인들은 출근 전 새벽이나 퇴근 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 시간대에 오신 분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자유롭게 자유롭게 파도를 타며 서핑을 즐기십니다. 저는 주로 바다에서 회원들을 케어하고, 대회 준비 기간에는 일정에 맞춰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Q. 초보 회원들을 위한 훈련이나 지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핑할 때 '파도를 잡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패들링하는 것으로, 보드 위에서 팔을 저어 파도를 잡는 것을 뜻하는데요. 파도가 오는 속력만큼 똑같이 패들링 해서 파도를 잡아야 하는 만큼 이를 초보 회원이 혼자 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먼저 잔잔한 바다에서 몸으로 익힌 후, 목표지점을 정해 같이 갔다 오고,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는 단계라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다녀오게 합니다. 실제 패들링을 훈련할 땐 회원 스스로 파도를 잡을 때까지 몇 번이고 뒤에서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Q. 서핑에 흥미는 있지만, 막상 시도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해운대 바다는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이 있어 서핑 초보자들이 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송정해수욕장은 바다 저 멀리 나가도 항상 발이 닿을 정도로 수심이 얕아 초보자가 안전하게 서핑을 탈 수 있는 곳이에요. 또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파도가 많이 들어와서 서핑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이죠. 그리고 서핑 슈트와 보드 자체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더라도 서핑을 하는 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서핑은 하고 싶는데, 물이 무서워서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셨으면 합니다.

팀 서프파크 서핑동호회 수상내역

- 2022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감배 서핑대회 1위(이하린·초등 고학년부, 강은수·초등 저학년부)외 다수 입상
- 202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배 서핑대회 초중부 1위(신주빈) 외 다수 입상
- 2023 제1회 해운대구서핑협회장배 유소년 서핑대회 1위(신주빈·U9, 강은수·U11, 이하린·U13)외 다수 입상
- 2023 제14회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 유소년부 1위(강은수) 외 다수 입상



Mini Interview

다채로운 파도를 만나는 서핑



박준형 회장

서핑은 자연을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의 파도가 오더라도, 각각 다른 파도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기분으로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서핑에 빠져 있는 이유도 이런 매력 덕분입니다.

서핑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송정 바다를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데요. 송정 바다는 많은 파도를 만날 수 있고, 해외의 다른 바다에 비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본 등 서핑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 서핑을 즐기기에 우리나라로 오는 서퍼들이 많죠. 또한 동해안의 바다에 비해 수온 변화가 크지 않고 따뜻한 계절에 상관없이 즐겁게 서핑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이든 경험자이든 상관없이 다채로운 파도를 만끽하며, 매번 타도 색다른 서핑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실내빙상장 쇼트트랙 체험 2023 레크리에이션교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의 청소년들이 체육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교실을 통해 다채로운 경험과 스포츠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레크리에이션교실’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매년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소외 및 취약 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레크리에이션교실은 청소년에게 레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이 클럽 활동으로 활발히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운영한 레크리에이션교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016~2018년 해양 레포츠, 2019년 루지, 서바이벌, ATV 사륜바이크, 2022년 쇼트트랙을 각각 체험했다. 레크리에이션교실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처음 접하는 스포츠의 재미를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HORT
TRACK SPEED
SKATING

이번 2023 레크리에이션교실 쇼트트랙 체험은 부산실내빙상장에서 진행되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김아랑, 곽윤기 등 쇼트트랙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고양시청팀이 매년 훈련을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하다. 2023 레크리에이션교실 참가자는 부산 관내 복지관 및 돌봄 센터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체험은 지도 강사의 지도하에 1시간 강습, 1시간 자유연습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체험 진행 시 레포츠를 처음 접하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부산실내빙상장 사전 답사를 통해 위험 요소 및 응급의료체계 확인, 구급함 준비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레크리에이션교실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스포츠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2023 레크리에이션교실

- 주최/주관 부산광역시체육회
- 일시 2023.8.3.(목) 13:00
- 참가인원 70여 명
- 장소 부산실내빙상장



제1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 장거리 핀수영대회 사하스포츠클럽 종합우승

글 _ 제3기 부산스포츠기자단 김도호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5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 장거리 핀수영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사하스포츠클럽이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명성을 떨치고 있다.

자연 속 장거리 수영 경기

핀수영(Fin swimming)은 '수영장 경기'와 저수지, 바다, 강 등에서 펼쳐지는 장거리 수영경기인 '오픈워터 경기'로 나뉜다. 오픈워터는 자연환경에서 치러지므로 수영 기술뿐 아니라 경기 중 발생하는 기상 변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7월 8일부터 9일(일)까지 경상남도 고성에서 5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 장거리 핀수영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반환점을 돌아오는 2km 장거리 대회를 실시하였다. 장거리 핀수영 대회는 핀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수영 영법에는 제한이 없고, 수온 및 안전 관계상 보호복을 착용하며 경기를 진행했다.

부산 을숙도에 위치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주말마다 핀수영 연습에 땀을 흘리고 있는 사하스포츠클럽은 본 대회에 3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동호인 부분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Interview

유탍곤 사하스포츠클럽 감독

Q. 감독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하스포츠클럽 감독을 맡고 있는 유탍곤입니다. 저는 전문 선수로서 부산시 대표 선수와 국가 대표 생활을 하였으며 부산 최초로 제8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핀수영 종목 금메달(800m) 및 한국 신기록 수립과 함께 국가 대표 선수로 활약하면서 아시아 핀수영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주말마다 바다수영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코치 겸 감독으로 동호인들 지도만 2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Q. 올해 대회 성과에 대해 자랑해주세요.

올해 5월 열린 제20회 이충무공배 전국 핀수영 선수권대회에서 대회신기록 4개와 종합우승, 그리고 이번 전국생활체육 전국 장거리 핀수영 대회에서는 개인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와 함께 동호인 부분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Q.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핀수영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많은 수상스포츠 중에서 무동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스포츠가 바로 핀수영입니다. 근력을 이용해서 물살을 가르고 나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오는 쾌감은 핀수영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워터 시합 같은 경우 전문 스포츠 선수만 할 수 있고, 자연을 느끼며 강이나 바다 또는 호수에서 시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Q. 선수 활동지원과 육성 방안 및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저와 함께할 수 있는 코치 선생님을 한 분 더 모셔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개설 등을 통해 신입회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핀수영은 바다 수영과 함께 비인기 종목이지만 모노핀의 활성화를 더 꾀하여 많은 분들이 새로운 스포츠를 접하고 건강한 동호회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름 스포츠로 스케이팅은 어떠신가요?

부산실내빙상장

글 _ 제3기 부산스포츠기자단 박윤선

이번 여름 계속되는 장맛비로 실외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제한이 생겼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내로 스포츠 및 여가 활동을 즐기러 오는 사람이 증가했다. 특히 뜨겁고 습한 이번 여름, 시원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빙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 영향받지 않고 즐기는 빙상

현재 부산에는 4개의 빙상장 및 아이스링크장이 있다. '부산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남구 빙상장', '동래아이스링크', '센텀시티 아이스링크',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부산실내빙상장'이다. 부산실내빙상장은 북구 덕천공원 안에 위치한다. 또한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과 맞닿아 있다.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빙상장과 거리가 있어 빙상장 바로

앞에 주차하거나 빙상장 가는 길목에 주차를 한 차들이 대부분이었다. 빙상장은 1층에 위치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관람석에서 빙상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회원권을 끊어야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데, 입장권은 일일 성인 기준 스케이트 대여료 포함 7,000원, 청소년은 대여료 포함 6,000원, 어린이는 대여료 포함 5,500원이다.



빙상장에는 탈의실과 선수 대기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다. 탈의실 옆문을 열면, 빙상장과 바로 연결된다. 빙상장 문 옆에 헬멧이 있는데, 종류는 3가지다. 어린이용의 노란 헬멧과 성인용의 파란 헬멧, 특대의 초록 헬멧이 있다. 물품 보관함은 빙상장 출입문을 기준으로 좌우에 있으며, 스케이트는 빙상장 앞에서 빌릴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빙상장을 찾은 김세빈 씨(사직동, 23)와 현소연 씨(부곡동, 23)는 평소 실외 러닝을 즐기는데 최근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색다른 스포츠를 체험해 보고자 부산실내빙상장을 방문하였다. 다른 실내 스포츠와 달리 시원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 등을 이유로 만족감을 보였다. 또한 처음 스케이트를 탈 때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타면 실력이 늘어서 좋으며, 열량 소모에도 도움이 되는 스케이팅의 매력에 빠졌다는 얘기를 전했다.

Interview

부산실내빙상장에서 스케이팅 레슨을 받으며 빙상 종목 관련 꿈을 키우는 박다원 학생(13)과 학생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해 빙상장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Q. 부산실내빙상장을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었나요?

A. 초등학교 1학년 때 빙상장이 생긴 걸 알고 그때 빙상을 하다가, 최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Q. 부산실내빙상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셨나요?

A. 예전에 무료로 스케이트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6개월간 했었고, 지금은 따로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Q. 빙상장 방문 빈도는 얼마나 되나요?

A. 일주일에 3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Q. 부산실내빙상장만의 특색이 있다면?

A. 강사분들께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점이 특색입니다.



부산실내빙상장

- 위치 부산 북구 금곡대로46번길 50(덕천공원 내 부산실내빙상장)
- 지하철 지하철 2, 3호선 덕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로 200m 거리에 위치
- 버스 15, 59, 111, 121 북구문화빙상센터역 하차(도보 5분)
8, 110, 126, 133, 148, 148-1, 169, 200, 307, 33, 46
덕천역 하차(도보 10분)
- 마을버스 금정구1, 북구3 북구문화빙상센터역 하차





바람에 몸을 싣고
저 바다에 누워...

요트

yacht



요트는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속도가 매우 빠른 배이다. 정해진 코스를 요트로 빨리 완주하는 경기 종목의 이름이기도 하다. 한때 상류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요트를 레저용으로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점차 대중화되는 추세다.

요트의 역사

요트의 역사는 그 기원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풍력, 즉 돛을 이용한 배로부터 요트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B.C. 3,400년경 이집트의 벽화에도 요트의 원형으로 추측되는 범선이 그려져 있는 걸로 보아 요트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트(Yacht)의 어원은 네덜란드어 '야흐트(Jaght)'에서 나왔다. 이는 '사냥하다', '쫓는다'는 의미를 가진 '야헨(Jagen)'에서 파생된 말이다. 네덜란드 해군이 얇은 근해에서 해적을 '추격하기' 위해 사용한 작고 가볍고 빠른 선박이 '요트'로 불리게 된 것이다. 바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어떤 방향으로든 자유자재로 항해할 수

있게 고안된 근대적 요트는 1660년 영국의 국왕 찰스 2세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기증한 2척의 수렵선이 그 시초라고 한다.

이처럼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유럽 왕실의 레저 스포츠로 저변을 확대해 가던 요트는, 1907년 세계요트연맹의 전신인 국제요트경기연맹(IYRU)이 정식 결성되면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堂堂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올림픽대회 종목으로는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대회부터 채택되었으나 기상 악화로 실제 경기는 열리지 못했고, 1900년 제2회 파리 올림픽대회부터 요트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부산 요트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1970년 몇몇 동호인들이 한강변 광나루에서 호수용 요트 20척을 제작하고 대한요트클럽을 설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요트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부산에서도 요트 보급이 활기를 띠어 1975년 10월 부산요트협회가 발족했다. 부산요트협회는 창단 후 우수 전문 선수 발굴·육성, 국내·국제 대회 개최, 요트인구 저변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부산이 한국의 요트문화를 선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다른 선수 육성 노력이 있었다. 1992년 해운대구청 실업팀 창단, 1999년 한국해양대 요트부 특기생 창단, 2008년 요트학교를 5개월 운영에서 연중운영 체제로 전환한 것 등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올림픽에서는 전통적으로 영국이 요트 강국이며 그 외에도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요트에서 그동안 메달을 따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에서 성장한 두 명의 요트 유망주 덕분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인 하지만 선수(해운대구청 소속)가 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형이 다니던 어린이 요트 교실에 따라갔다가 요트의 매력에 빠졌다고 한다. 하지만 선수는 2020 도쿄 올림픽대회에서 한국 요트 사상 최초의 결선 진출자가 되면서 7위라는 사상 최고 성적을 올렸다. 또 다른 유망주는 역시 해운대구청 소속인 조원우 선수이다. 그는 2009년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으며 2011~2012년에는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해 큰 화제가 되었다. 2019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 9위를 달성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올림픽대회에서도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다.

요트의 종류



요트



동력 요트 (Motor yacht)

- 레저/놀이용
- 선실/주거시설
- 엔진으로만 추진



세일링 요트 (Sailing yacht)

- 세일과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보트

대형세일링 요트 (Keel Boat)

- 외양 세일링용(레저/스포츠)
- 선실/주거시설
- 세일링과 엔진추진

소형세일링 요트(Dinghy)

- 연안 스포츠용
- 소형, 경량, 간단한 구조, 무동력
- 올림픽대회/아시아경기대회 국제대회 경기종목

윈드/카이트 서핑



킬보트 Keel Boat

선저 중앙에 두꺼운 철판을 붙여 무게 중심을 낮추어 배의 복원력을 좋게 한 배로서 먼 바다 항해에 적합하다. **올림픽대회에는 2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선실이 없는 단일형 킬보트와 선실이 있는 대형 킬보트로 나눌 수 있다. 선실이 없는 단일형 킬보트는 세계요트연맹에서 관리하며 올림픽대회 종목은 여기에 해당한다. 선실이 있는 대형 킬보트는 먼 바다 항해에 주로 사용된다.

딩기 Dinghy

엔진과 선실이 없는 작은 요트를 말한다. 주로 1인승 또는 2인승이며, **올림픽대회 10개 종목 중 6개 경기가 딩기 종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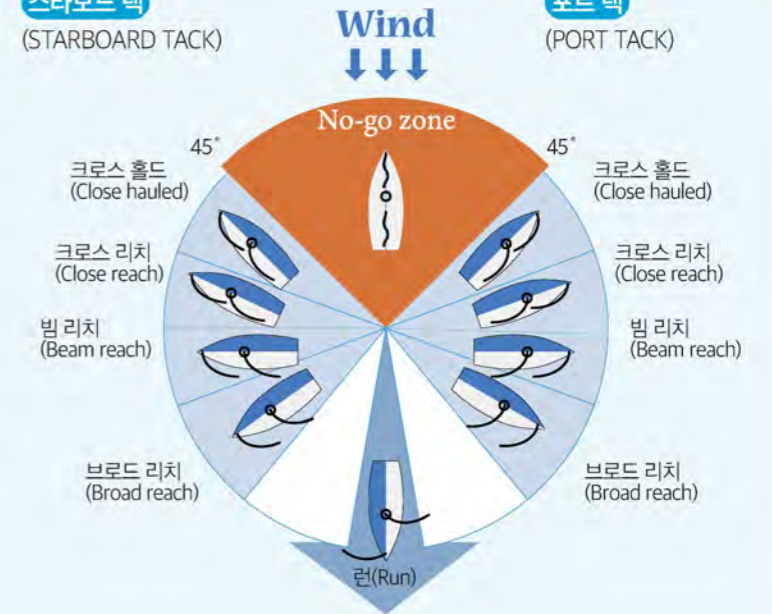
요트의 세일링 코스

요트는 돛(세일, sail)에 바람을 받아서 바람의 힘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옛날 돛단배와 원리가 같지만, 맞바람을 받아 나가는 성능은 돛단배보다 훨씬 뛰어나다. 요트의 중앙에서 물 밑으로 내려져 있는 횡류 방지 장치가 옆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요트는 맞바람이 불 때도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바람을 거슬러 나아갈 수 있게 되면서 스포츠가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요트는 바람이 불어오는 정면 방향의 대략 좌우 45도 범위(No Go Zone)를 제외하고 어떤 방향으로도 범주*할 수 있다.

*범주 : 돛에 바람을 받아 물 위를 항해함

스타보드 택 (STARBOARD TACK)

포트 택 (PORT TACK)



크로스 홀드 Close hauled

크로스 홀드는 크로스 리치에서 약간 더 러핑하여 바람의 방향과 35~45도 각도로 풍상을 향하여 범주하는 것이다.

러핑 Luffing

풍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을 러핑이라고 한다. 러핑을 크로스 홀드 코스보다 더 많이 하면 요트가 정지하므로 선체와 바람의 각도가 35~45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빔 리치 Beam reach

빔 리치는 바람과 선체가 90도의 각도로 범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범주법은 가장 단순하고 강풍에도 위험하지 않으므로 초보자가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기술이다.

베어링 어웨이 Bearing away

베어링 어웨이는 풍상에서 풍하 코스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브로드 리치 Broad reach

요트가 빔 리치에서 브로드 리치가 되도록 베어링 어웨이 시키면, 여기에 맞게 돛을 늦추어 주고 센터보드를 1/4 정도만 내린 상태로 조정한다.

쿼터 런 Quater run

좌우 방향 135도에서 바람을 받아 달리는 범주 상태를 말한다. 바람은 등에서 비스듬히 받게 된다. 이때 센터보드는 반쯤 올려준다.

러닝 Running

러닝은 순풍을 받아 범주하는 방법으로 바람과 요트의 진행 방향이 거의 동일하다.

참고자료 대한요트협회, 부산광역시요트협회

SPORTS

JOB 운동선수의 멘탈 코치 스포츠 심리상담사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멘탈'이 꼽힌다.
프로스포츠에선 선수들의 멘탈 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 심리상담사의 역할도 대두되고 있다.



운동선수들의 마음을 돌보다

스포츠 심리학은 선수와 선수를 둘러싼 스포츠 구성원들의 인지, 정서, 행동 변화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다. 즉,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스포츠 구성원들의 심리적 역량을 강화해 운동 수행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 만큼 스포츠 심리상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수들이 운동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스포츠 심리상담에서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선수 자신의 향상이며, 그 과정에서 경기력도 함께 상승하는 것이다. 운동선수는 자신이 목표한 바를 향해 훈련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상당할 수도 있고, 경기력이 나오지 않아 자신감이 결여되기도 한다. 스포츠 심리상담사는 선수가 느끼는 심리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부담감을 해소해 줌으로써 선수는 더욱 운동에 집중하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스포츠 심리에서는 주로 경기력 향상, 선수 위기 중재, 팀(조직) 관리, 팀(조직) 의사소통, 기타 경기 분석 등 선수 개인 및 팀의 심리 상태를 다룬다.

흔히 스포츠 심리학을 심리학의 한 분야로 생각하는데, 체육학에 속해 있다. 스포츠 선수의 심리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구단에서도 멘탈 코치를 고용하는 추세이며, 체육대학에도 관련 전공학과가 개설되고 있다. 관련 자격증의 경우 아직 민간 자격증뿐이지만, 새로운 직업군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스포츠 심리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첫째, 학문적으로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선수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각종 다양한 심리 검사 도구를 이용하는 등 맞춤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상담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관한 지식도 갖춰야 한다. 이런 지식은 스포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늘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마음은 필수다. 셋째, 공감 능력이다. 평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일이 즐겁다면 스포츠 심리상담사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진 셈이다. 또한 상담을 통해 선수 안에 잠재된 무한한 능력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선수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것이 멘탈코치인 스포츠 심리상담사의 일이다.

→ 대한체육회에서는 **e진로지원센터**(<https://welfare.sports.or.kr/>)를 운영하고 있다. 선수들의 이직 및 취업을 위한 진로상담뿐만 아니라 진로교육, 맞춤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스포츠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Food poisoning



여름 무더위가 기승하면서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 음식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할 때,
철저한 위생관리로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전해보자.



식중독균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여름

식중독은 살아있는 세균 또는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를 함유한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등 급성 위장염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원인에 따라 크게 3가지 식중독으로 나뉘는데, 세균 자체에 의한 감염이나 세균에서 생산된 독소에 의해 증상을 일으키는 '세균성 식중독',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성 혹은 식물성 독소에 의한 '자연독 식중독', 인공적인 화학물에 의해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성 식중독' 등이 있다.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관 내에서 잘게 분해되고 각 영양소로 흡수된다. 이때 음식물에 독소나 세균이 섞여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하는데, 독소가 소화관 상부에 있는 경우에는 구토를, 하부에 있는 경우 설사를 통해 체외로 배출시킨다. 식중독은 원인 물질에 따라서 잠복기와 증상이 다르다. 미생

물의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하면 소화관에서 흡수되지 않고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만 일으킨다. 하지만 세균이 장벽에 붙거나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구토 및 설사와 같은 증상과 함께 전신에 열까지 나기도 한다. 식중독 환자는 소화관 중 소화 흡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장점막이 손상되면서 소화 흡수 기능이 감소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 설사가 악화되는 것이다. 설사가 잦아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음식부터 천천히 섭취하면 좋다. 또한 설사로 인해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중독에 걸려도 보통의 면역력과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 치유될 수 있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라면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식중독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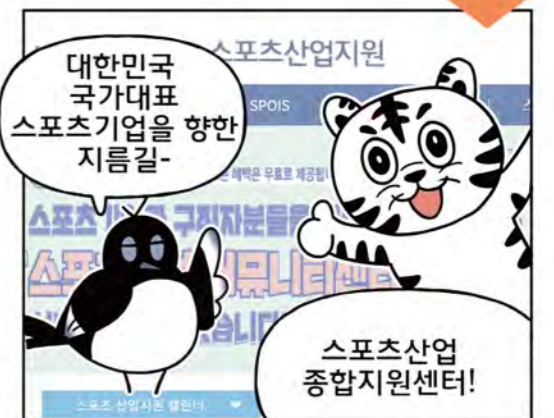
01. 육류, 가금류, 계란 및 해산물은 완전히 익혀서 먹는다.
02. 물은 반드시 끓여 먹는다.
03. 모든 음식은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한다.
04. 산이나 들에서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먹지 않는다.
05.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식중독으로 심한 설사 증상이 발생하면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을 섭취해준다.



스포츠산업지원센터 편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백호랑 까치랑]







해변의 도시 부산에 스며든 영롱한 빛과 다정한 온기

요시고 사진전: 따뜻한 휴일의 기록

San-Sebastian,-Spain-(2019)

© MEDIA&ART © YOSIGO



2021년 여름, 4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서울을 뜨겁게 달군 <요시고 사진전: 따뜻한 휴일의 기록>이 해변의 도시 부산을 찾아왔다. <요시고 사진전: 따뜻한 휴일의 기록> 부산은 요시고(YOSIGO)의 국내 첫 투어 전시로, 푸른 지중해를 둘러싼 유럽의 휴양지부터 마이애미, 두바이, 부다페스트 등 세계 여러 여행지를 기록한 350여 점(5m 초대형 아트워크 포함)의 사진들을 건축, 다큐멘터리, 풍경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해 선보인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단면도 요시고의 프레임 안에 균형 있게 배치되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다시 태어난다. 동시에 그 장소, 그 순간에 존재했던 영롱한 빛과 다정한 온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번 전시는 엔데믹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사진에 둘러싸여 다가오는 여행에 대한 기대와 따뜻한 안정이 쌓여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몇 가지 관람 포인트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이번 전시는 27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MZ 세대의 아티스트, 포토그래퍼 요시고의 국내 첫 투어 전시이다. 글로벌 잡지와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는 그의 작품들을 부산에서 만나볼 수 있다.

두 번째, 요시고만의 독창적인 언어로 재해석한 세계 각국의 이국적인 풍경들에 주목해 보자. 세계 여러 도시의 특징을 그만의 언어로 새롭게 표현하는 작가의 예술적 취향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예술적 심상을 극대화하는 대형 사진, 영상, 사운드 및 공간 구성은 사진이 담고 있는 따뜻한 온기와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네 번째, 요시고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사진에 낭만을 더하는 방법을 배워 보자.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풍경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록되는 순간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



Miami,-Florida,-USA-(2019)

© MEDIA&ART © YOSIGO

사진작가 호세 하비에르 세라노(Jose Javier Serrano)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명인 '요시고'는 'Yo sigo(Go Forth)'라는 뜻으로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의 삶의 철학을 담고 있다. 아날로그의 낭만을 사랑하는 작가는 일상의 풍경과 장소를 특유의 부드러운 색감과 정갈한 프레임으로 재탄생시킨다. 그중 관광지지의 풍경과 건축물을 피사체로 한 다양한 형태의 작업물로 주목받았으며, 수많은 브랜드에서 러브콜을 받는 등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전시 정보

기간 ~ 2023.9.3.(일)까지 (휴관일 없음, 공휴일 정상 운영)
전시장 KT&G 상상마당 부산 5F 갤러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39)
입장료 15,000원(성인/청소년/아동 공통, 36개월 미만 무료)
주최 KT&G 상상마당 부산
주관·제작 (주)미디어앤아트

자료·사진 제공 _ 그라운드시소, ㈜미디어앤아트, KT&G 상상마당 부산

BSC SPORTS NEWS



2023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개최

부산체육 미래 촉망되는 26개 종목 초·중학생 150명 장학금 전달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미래의 체육인재 육성과 꿈나무선수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4일(금)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2023 부산체육꿈나무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장학금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선수 등 부산체육의 미래가 촉망되는 26개 종목 초·중학생 150명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1명당 각각 100만 원씩 전체 1억 5천만 원 규모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꿈나무육성사업은 200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장학사업의 결과로 부산선수단

은 전국대회에서 꾸준한 성적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개의 대회신기록과 3명의 다관왕 선수, 2명의 최우수선수를 배출하였고,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참가 이후 최다 메달 획득(총 25개) 등 16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하며 선수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대회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꿈나무선수육성과 저변확대는 물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육성을 위한 스포츠클럽 지원 등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체육사랑카드 발행 협약 및 1호 카드 전달식

전국 최초 체육인을 위한 특화카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8월 1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BNK부산은행과 ‘부산체육사랑카드’ 발행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호 카드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부산은행 전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한 ‘부산체육사랑카드’는 체육활동에 특화된 혜택으로 지정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 부산 관내 공공체육시설(44개소)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이후에는 민간체육시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 등록 신청 방법 및 등록 완료된 체육시설 현황은 부산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외에도 ▲스포츠업종 10% ▲병·의원/약국 10% ▲학원/건강식품/생

활(간편결제/편의점/커피) 5% 할인을 제공하게 된다. ‘부산체육사랑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월간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 및 전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SPORTS is BUSAN’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산체육사랑카드’가 출시된 만큼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복지로 행복도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2023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사업 자체 교육

중구체육회는 7월 31일(월) 사직실내수영장 2층 교육장에서 2023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사업 자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재난 대응과 안전 조치 지도법, 현장지도 시 발생할 응급상황 대응 이론 및 실습법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구체육회

2023년 어린이체능교실

서구체육회는 7월 22일(토) 서구 꽃마을 씨름장에서 서구 관내 4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체능교실을 운영했다. 어린이 안전교육, 호신술 배우기, 씨름 레크리에이션, 물총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통 체험 활동과 전통 민속놀이인 씨름 종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모험 개척, 심성 개발, 신체 단련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도구체육회

장수체육대학

영도구체육회는 7월 21일(금)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130명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였다. 이번 장수체육대학에서는 부산지방검찰청 박대범 검사의 보이스피싱 교육 및 윤방지 강사의 '깨우자, 채우자, 실천하자'라는 주제로 코그니사이즈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영도구체육회는 장수체육대학을 통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및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성취감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진구체육회

2023 부산진구 여성특화 체육교실

2023 부산진구 여성특화 체육교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행 종목은 배구이며,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19시에서 2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성특화 체육교실을 통해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와 더불어 부산진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활기찬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동래구체육회

2023 동래구체육회 2차 이사회

6월 26일(월) 농심호텔에서 2023 동래구체육회 2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동래구체육회장, 부회장, 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 정관 일부 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정길호 동래구체육회장은 "건강한 삶을 위해 동래구 체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동래구체육회는 동래구 체육 발전과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남구체육회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남구체육회는 7월 16일(일) 김해장유롯데워터파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을 진행하였다. 비가 오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가족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여러 가지 기구 체험을 하는 등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해운대구체육회

제8회 해운대구청장기 검도대회

7월 8일(토) 제8회 해운대구청장기 검도대회가 가장 실내체육관 내 보조경기장에서 2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검도대회를 통해 해운대구 검도 동호인들의 친선교류 및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대회 결과 단체전 우승으로 거현검도관A, 조은검도관A, 해송검도관이 차지하였다.



사하구체육회

제17회 사하구청장배 태권도대회

7월 1일(토)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사하구청장배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약 4,000명의 태권도 동호인과 가족들이 참가하였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하였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열띤 경기를 펼쳤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금정구체육회

2023년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금정구체육회는 7월 22일(토) 금정구 관내 거주 가족 13팀(41명)을 대상으로 2023년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을 운영하였다.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파도풀, 캐논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리고 온 가족이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참여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금정구체육회 직원 일동이 함께하였으며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행사가 되었다.



강서구체육회

제10회 강서구배드민턴협회 여성부 대회

2023년 제10회 강서구배드민턴협회 여성부 대회가 7월 2일(일) 강서국민체육센터 다솜홀에서 부산강서구배드민턴협회 여성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클럽별 상호친목을 다지고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사회생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연제구체육회

제26회 연제구청장기 태권도대회

연제구체육회는 7월 2일(일) 연제구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태권도협회 임원진, 동호인, 출전 선수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연제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결과 우승 연신 태권도장, 준우승 현대 태권도장, 3위 승재 태권도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수영구체육회

2023년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수영구체육회는 7월 23일(일) 2023년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수영구 가족 약 40여 명이 참여해 광안리해양레포츠펠드센터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해양레포츠헤임을 진행하였다. SUP(패들보드), 모터보트, 밴드웨건 등 다양한 종목을 체험한 수영구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상구체육회

2023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사상구체육회는 7월 9일(일)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상구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총 20가족 8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자유로이 워터파크 시설을 이용하여 즐거운 주말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사상구체육회 지원으로 가족간의 화합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기장군체육회

제9회 무주군 초청 기장군수배 배드민턴대회

7월 2일(일) 기장체육관 주 경기장에서 제9회 무주군 초청 기장군수배 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되었다. 기장군 및 무주군 선수 3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부상자 없이 양 군 선수단이 하나 되는 축제의 날을 보냈다. 기장군과 무주군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매년 무주군 선수단이 기장군으로 방문하여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 여름 캠프 실시



꿈나무체능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월 21일(금) 김해롯데워터파크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꿈나무체능단원들의 신나는 환호성으로 가득했던 여름 캠프 행사는 꿈나무체능단에서 벗어나 일상에 큰 활력이 되었다. 또한 단원들 간 어울림 속에서 창의력, 협동심, 리더십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단원들의 안전을 위해 10명의 인

솔자가 동행하였으며,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날 행사를 끝으로 꿈나무체능단은 8월 4일(금)까지 2주간의 여름방학을 보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길 바라며 개학 후 웃으며 응원하는 단원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북구국민체육센터

2023 생활체육 줌바로빅 교실 개강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2023 생활체육 무료(줌바로빅) 교실이 북구 구민(성인)을 대상으로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 개강하였다. 줌바로빅 교실은 북구체육회에서 7월 20일(목)부터 유선으로 선착순 접수받았으며, 8월 2일(수)부터 9월 27일(수)까지 2개월간 월, 수, 금요일 15시부터 15시 50분까지 진행된다. 직장인에게는 직장에서의 쌓인 스트레스 해소를, 주부 회원들에게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활력 등 건강을 찾게 해줄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사고 또는 수상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응급 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수상안전 교육, 생존 수영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 위기상황에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영도국민체육센터

2023년 부산보건대학교 표준현장실습 협약



영도국민체육센터는 부산보건대학교와 협약하여 7월 13일(목)부터 8월 4일(금)까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였다. 협약기간 동안 2명의 학생이 참여해 스포츠시설의 전반적인 운영·회원 상담 방법 및 지도방법 교육·프로그램 개발·기획·홍보 등 다양한 실습이 진행됐다. 이 경험을 통해 사회인으로서의 직무 능력이 향상되길 바란다.



부산실내빙상장

고양시청 빙상팀 방문



고양시청 빙상팀(감독 모지수) 선수들이 올해도 부산실내빙상장을 찾았다. 고양시청 빙상 선수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 10일(월)부터 7월 30일(일)까지 전지훈련을 실시

시하였으며, 부산대표선수단도 합동훈련에 참가해 기량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고양시청 빙상팀 선수단은 곽윤기, 김아람 등 스타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제1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7월 8일(토), 22일(토)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제1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남자신인부, 여자 개나리부, 국화부 3개 부서가 각각 진행되었으며, 특히 남자신인부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출전해 시민들과 함께 경기하는 등 모두가 대회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에서 개최된 유일한 전국대회로 앞으로도 꾸준히 개최되길 기대한다.

경기결과	남자신인부	국화부	개나리부
1위	김성호(부산) 황보금(부산)	박만재(로덱스) 김연아(이공권)	김현숙(울진백암) 손미화(울진비랑)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 전문선수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체력 측정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 전문선수 10명이 7월 17일(월) 부산스포츠과학센터에 방문했다. 장선미 센터장의 인사말과 센터 소개에 이어 지도자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두 그룹으로 나뉘어 체력측정을 실시했다.

추후 선수들의 체력을 다시 측정함으로써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한 성장 과정 및 보완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선수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영도구스포츠클럽



2023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진행



부산광역시영도구스포츠클럽은 8월 1일(화)부터 8월 31일(목)까지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스쿼시와 골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스쿼시와 골프를 경험하며 여름방학을 튼튼하고 알차게 보냈으면 한다.

바렐 전기 아연 아연니켈 합금 표면처리 전문업체

Electrical Barrel Zinc
Zinc-Nickel Alloy Plating



동아플레이팅(주)
DONG A Plating Co., LTD.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가길 20
부산청정도금센터 101, 107, 108, 111호
전화 | 051-263-2170 팩스 | 051-972-2173
E-mail | donga1089@dongaplating.com

<http://www.dongaplating.com>



Sports is Busan!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월간 통합 할인 한도

전월실적	월간 통합 할인 한도
40만원 이상	10,000원
80만원 이상	20,000원
120만원 이상	40,000원

상품서비스 및 이용 안내

구분	상세내용	제공조건	할인율
부산시 체육시설	부산광역시 체육회 지정 공공 / 민간 체육시설	월 할인한도 최대 1만5천원	10%
스포츠	골프 / 스포츠 / 레저 업종	월2회 / 월 할인한도 최대 1만원	10%
의료	병원 / 약국 업종	월2회 / 월 할인한도 최대 1만원	10%
학원	학원 업종	월2회 / 월 할인한도 최대 5천원	5%
건강식품	홍삼 / 인삼 / 건강식품 업종	월2회 / 월 할인한도 최대 5천원	5%
생활	간편결제 / CU / GS25 / 스타벅스	월2회 / 월 할인한도 최대 5천원	5%

스포츠연계업종 결제 시 최대 1만 2천원 할인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3년 8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이벤트 대상 BNK부산은행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기업/선불/기프트카드제외)

이벤트 내용 #Mytag하고 부산지역 스포츠연계업종(3종) 이용 시 결제일 할인 제공

· 이벤트 이용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 전체메뉴 > 카드 > '# 마이태그'

- 혜택 1** 부산체육회 지정 체육시설에서 건당 2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 결제일 할인 (기간 중 1인 1회)
- 혜택 2** 부산시소재 스포츠업종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결제일 할인 (기간 중 1인 1회)
- 혜택 3** 부산시소재 의료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 결제일 할인 (기간 중 1인 1회)

※ 상기 혜택은 마이태그 후 대상시설 및 대상업종에서 결제 시 할인이 제공됩니다.
※ 이벤트 관련 세부내용(혜택 제공 업종 및 기준 등)은 혜택별 마이태그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혜택별 할인제공 대상업체 및 업종기준(BC카드 가맹점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산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 부산광역시 체육회가 인정한 공공/민간 체육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은 부산시 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busan.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스포츠업종 : 부산지역소재 골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스키장,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클럽, 당구장, 종합레저타운, 기타레저업, 레저업(화완제업종)
- 의료업종 : 부산지역소재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업종
· BC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주소 및 업종이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서비스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산시 체육시설은 부산광역시 체육회가 인정한 체육시설 외의 가맹점에서 이용 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포츠 및 의료업종 할인은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앱이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 가맹점 이용 시 혜택 미적용)

· 타 할인 상품서비스등과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이벤트별 기준금액이상 결제 시 할인이 제공됩니다.
(결제금액 할인제공은 불가하며, 포인트 등으로 대상금액미만 결제 시 혜택 제공 제외)
· 마이태그 후 결제 시에만 결제일 할인이 제공됩니다.
· 기업/선불/기프트카드 및 간편결제이용 시 혜택 적용 제외됩니다. 단, 간편결제 중 삼성페이, 엘지페이는 이용 가능
· 일부 이벤트는 신착순 이벤트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태그 후 최초 결제건부터 혜택이 적용 됩니다.
· 매출주소 시 제공된 혜택은 취소되며, 매출주소 시 취소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야 혜택이 복원되며 혜택이 복원된 후 결제하시어 다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가족카드 소지원의 경우, 반드시 본인회원이 혜택을 태그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족카드 소지원 태그 시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본 이벤트는 당사 또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결제금 전액에 금융상품명세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 일시불 거래연체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가액(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연체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환상사법정아울과 상호금융거래지급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페이퍼 ON 스마트

“종이는 줄이고 생활은 스마트하게”

도시가스 고지서, 카톡으로 간편하게!
지구를 살리는 스마트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톡톡**한 생활

kakao TALK 한번만 가입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Ch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부산도시가스 검색

도시가스 GAS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톡 가입하기

비대면으로 편리한 셀프서비스
조회/납부/이사방문신청

QR코드로 사용하기

☑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QR코드 스캐너로 비춰주세요

☑ 가입/관리 클릭



이사 후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셀프로 스마트하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BNK 부산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Only 부산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